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7 September_ Vol.176





Cover story

새 계절, 새 마음으로
2017년의 남은 여정도 힘차게!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가을은 모든 잎들이 꽃이 되어 피어나는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봄, 가을을 맞이하여 새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났지만, 새 계절의 새로운 마음으로
삼정KPMG와 함께 2017년의 남은 여정도 힘차게 보냅시다!

Contents

September 2017 Vol.176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Issue Focus**
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은?
- 06 **Team Story**
삼성KPMG IT Audit팀
- 08 **Client+**
KT
- 10 **Market Reader**
인터넷전문은행의 빅뱅
- 12 **Expert's Advice**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도입에 따른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Culture Relay**
행복한 우리 본부 문화를 소개합니다!
- 16 **인재양성소**
GEP 8기 우수자 & 한공회 종합평가 성적우수자 인터뷰!
- 18 **Talk+Play+Love**
칵테일 원데이 클래스 체험기
- 20 **Culture & Etiquette**
라인강의 기적, 독일의 문화와 에티켓
- 22 **KPMG Story**
2017 New Partner Story
- 24 **Samjong News**
GEP 8기 우수자 시상식 개최 외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보명C&I(02-2274-4545)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은?

지난 8월 2일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 3가지의 큰 주제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이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삼정KPMG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본다.



세법개정안 최고의 화두, 일자리 창출 지원 위한 제도 마련

이번 개정안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 창출 지원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직접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하도록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특히,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의 중복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대기업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2017년 일몰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모태로 신설된 규정으로 기업 소득 중 일정 비율을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출연금으로 지출하지 않을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환류세제에서는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이 환류세제의 공제대상이었던 것에 반해 촉진 세제는 이를 배제하고 임금 증가와 상생협력출연금의 가중치를 높여 일자리 창출 등을 직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연 1억2천만 원 이상에서 7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실질적인 법인세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인세,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복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결국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린 이후 9년 만의 환원이다. 오랫동안 논란되어 온 쟁점으로 국회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개정안이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는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더욱 축소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되는데, 이 공제한도가 2018년에는 60%, 2019년 이후에는 50%까지 축소된다. 독일 및 프랑스(무제한)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공제기간이 장기간이어서 한도초과분의 기간 내 전부공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한도 규정이 도입될 당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도초과분은 공제기간 내 전부 공제돼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입법의 당위성을 언급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공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제도가 신설된다. 현재도 과다한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하는 과소자본세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현 제도는 국외지배주주와의 차입금에 대해



서만 적용되고 있어 국외자회사에 대한 차입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받아왔다. 이에 OECD 권고에 따라 국외자회사를 포함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된다.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돼

분수효과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정책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된 만큼, 고소득층 개인납세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고소득층 과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추진을 위해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2% 포인트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개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 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나,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20%와 25%의 초과누진세

율 체계로 변경된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본 개정안은 보다 많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제도 합리화 위한 개정 사항 등

조세제도의 합리화 측면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이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하되,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세수일일 방지 목적에서 신탁 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게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판례(대법 2012두22485)와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도록 했다.

납세 편의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포괄적 사업양수도 여부의 판단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조정된다.

다만, 포괄적 사업양수도 여부의 불분명함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불분명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분명함으로 남게 됐다. 이는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 법인세법상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이익잉여금의 처분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이에 법인세법을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자 본 규정이 삭제된다. 요컨대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세법상으로도 손금산입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CONTACT US

삼성KPMG TAX 김성현 사무이사

Tel. 02-2112-0958 E-mail. sunghyunkim@kr.kpmg.com

Audit Innovator, 삼성KPMG IT Audit팀

최근 기업의 회계감사 수행 시 IT의 영향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삼성KPMG의 IT Audit팀은 IT와 회계, 감사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조직으로서,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감사접근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도입해 전통적인 감사방식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복잡한 기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비금융 분야의 이슈에 따른 대응

2017년부터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무점포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많은 금융권의 다양한 비즈니스가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기반의 인증으로 대체하고, 다양한 전자기기를 통한 간편한 거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전산오류나 해킹 등이 발생되면, 비즈니스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수주산업 관련 특정 기업의 분식사례로, 해당 기업 및 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외부감사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삼성KPMG의 IT Audit팀은 금융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영역에 설계된 IT 통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감사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수주산업을 대상으로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에 관련한 공사현장별 원가 집계, 배부 적정성 검토, 현장별 원가전용 여부 등의 검토 등을 Data & Analytics 기반의 감사 접근법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다수의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삼성KPMG

삼성KPMG의 IT Audit팀은 기존 수작업 중심의 전통적인 감사기법에서 진일보한 IT 감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및 도입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삼성KPMG의 12개 감사본부에서 IT 감사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고 있다.

감사 시즌에는 일반 감사팀과 협업하여 상장회사와 같은 감사위험이 높고, 중요한 감사고객에 대해 IT 감사절차를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또, 감사시즌이 종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IT 감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보완하고, 일반 감사팀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삼성KPMG의 내부 IT 감사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KPMG Global이 추진하는 미래의 감사환경으로의 전환 (Audit Transformation), 즉, 데이터 분석기반으로의 감사 접근 방법과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감사환경 전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방법 등의 최첨단 분야에서 삼성KPMG 대표 조직으로 앞장서고 있다.

삼성KPMG IT Audit팀의 장점은 IT 내부 통제 구축 및 감사에

있어서 업계 최고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회계법인 중 가장 많은 미국 내 상장된 한국 기업을 감사 중이며, 다년간의 미국 감독기관인 PCAOB의 Inspection 경험을 바탕으로 IT 내부통제 구축 및 내외부 감사에 있어서 타 경쟁법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감사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KPMG Global에서도 인정한 Data & Analytics Leading Team이라는 점이다. 삼정KPMG의 IT Audit팀은 최근 KPMG 아시아태평양지역(ASPAC)에서 개최한 Data & Analytics 공모전에 출전하여 당당히 2위를 차지했고, ASPAC 지역의 모든 KPMG Partner들에게 출품된 Data & Analytics 감사기법이 Best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삼정KPMG IT Audit팀의 Data 분석 역량은 비단 국내뿐 아니라 Global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이다.

삼정KPMG IT Audit팀 주요 서비스

외부감사업무 (IT영역)

- 회사의 프로세스 분석 및 IT통제(자동화통제)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
- Data & Analytics 기반 대량거래 발생 분야의 감사절차 수행

IT Audit 기반 용역

- 재무보고내부통제(SOX)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서비스
- 아웃소싱기업에 대한 내부통제검토 서비스 (SOC1)

Data & Analytics 기반 용역

- 차세대 시스템 및 신규 ERP 구축 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
- Data & Analytics 기법을 활용한 시스템 통제 및 데이터 정합성 검토 서비스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작성 및 검토 서비스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IT Audit팀으로 거듭날 것

삼정KPMG IT Audit팀은 IT Auditor로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팀원들의 정보시스템감사인(CISA)자격 취득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최고 목표로 두고 보다 적극적인 감사본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IT Audit에서의 숙련된 역량을 기본으로 감사영역 외 IT 감사기반 비감사 용역으로의 확대(내부감사 서비스 부서와의 연계, 세무분야의 데이터 분석 기반 서비스, 차세대 시스템 구축 후 검토 서비스, XBRL Design 컨설팅 및 검증 등)를 통해 명실상부한 'IT Audit 기반 전문가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팀의 리더인 한기원 상무를 비롯해 총 4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IT Audit팀. 사진에서는 파트너, 이사 및 S.Manager 등이 화기에매한 분위기 속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각 팀의 리더가 소개하는 삼정KPMG IT Audit팀

“삼정KPMG의 IT Audit 금융팀은 Data & Analytics 전문가로서 Sampling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감사절차와 달리 100% Population을 대상으로 디지털화된 금융거래 Data를 분석하여 회계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ata Flow를 파악하여 Risk 영역 및 위험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Risk 영역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절차를 설계하여 100% 전수 검토를 수행함과 동시에, 분석 결과 도출된 예외사항에 집중하는 감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Audit · 금융팀 리더 서윤석 이사

Tel. 02-2112-3941 / E-mail. yoonsukseo@kr.kpmg.com

“삼정KPMG의 IT Audit 비금융팀은 수주산업, 제조업, 유통업, 통신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ERP 전문가와 회계사로 구성된 최고의 전문 조직입니다. 높은 팀워크와 축적된 IT Audit Know-how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사의 Key Process 및 연계된 응용 시스템의 위험 식별 및 평가 ▲전반적인 IT 일반통제 및 개별 업무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 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용성 평가 ▲비금융 D&A Audit Leading을 통한 회계감사 Quality 향상 및 Value 제고 등 신뢰성 있는 IT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 Security Control 설계구축 및 진단 ▲IS Governance ▲D&A 기법을 통한 내부통제 분석 및 상세 개선평가 제시 ▲IFRS 15번 시스템 영향 분석/설계요건 제시 등 복잡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시스템 환경에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양질의 IT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Audit · 비금융팀 리더 신광근 이사

Tel. 02-2112-0154 / E-mail. kwangkenshin@kr.kpmg.com

글로벌 1등 통신기업으로 도약하는 KT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한 KT는 국내 최대의 종합통신사업자로서, 2009년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 합병 후,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도입하여 스마트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KT는 GiGA급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ICT 융합 서비스를 발굴·육성 중이며, 혁신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1등 통신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KT 광화문 신사옥



GiGA 인프라로 연결된 편안한 세상 'GiGAtopia'

KT는 첨단 ICT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고 있다. 'ICT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통신과 융합 서비스를 제공,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최고의 국민기업'이라는 기업 미션으로, 'Global No. 1 KT'의 비전을 수립, 미래 융합 ICT 확대와 글로벌 기가 솔루션 제시, 국제 5G 표준 주도 등 혁신기술을 선도함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KT의 핵심가치는 'Global No. 1 KT'의 비전 달성을 위한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모든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실천규범을 제시한다. 핵심가치를 통해 KT는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글로벌 1등을 지향하며, KT 고유의 혁신 플랫폼인 1등 워크숍을 중심으로 경청과 협업을 통해 부서 간 벽을 허

물고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업무에서 고객 최우선으로 역량을 결집하며,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을 통해 회사의 발전적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지난 2014년 KT는 'GiGAtopia 실현'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 미션과 비전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GiGAtopia란 인간과 모든 사물이 GiGA 인프라로 연결되어 편리함을 넘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KT는 GiGAtopia의 실현을 위해 '5대 플랫폼 사업 집중 육성',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기반 차별화 가치 제공', '고객 최우선 경영의 3대 전략'을 추진하여,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기술 1등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KT의 새로운 혁신 서비스

KT는 사람을 생각하는 혁신 기술 실현을 위해 4가지 중점 사업 영역 및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TECG LEADERSHIP-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 5G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상호 결합한 지능형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5G 네트워크는 빠른 속도, 끊김 없는 연결, 방대한 용량으로 특징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말한다. KT는 90여 건의 5G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세계 최초로 무선환경에서 256Gbps 속도로 5G 전송기술 시연에 성공하는 등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두 번째로 'GLOBAL GiGAtopia-글로벌 GiGAtopia 실현'으로,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편리함을 넘어 누구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KT는 UN Global Compact,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등 국제무대에서 차세대 지

능형 네트워크가 열어갈 미래를 제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ICT 역량을 기반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세 번째는 'INNOVATION-혁신적인 플랫폼 서비스'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는 지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KT는 미디어, 스마트에너지, 금융거래, 재난/안전/보안, 기업/공공 가치 향상을 5대 미래 플랫폼으로 선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USTAINABILITY-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으로 이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전 세계의 경제·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17개 목표로 시행되는 UN의 글로벌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 KT는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5G 지능형 네트워크와 5대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동참하고 있다.

임직원과 소통하고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기업

KT는 임직원들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창의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시간 활용, 여성 생애주기별 케어링 프로그램, 노후 대비 지원, 고충 해소 등 KT의 다각적인 노력은 중장기적인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KT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임직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열린 소통의 조직문화를 구축했다. 적극적인 임직원 고충 처리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



1. 지난 4월, 방글라데시의 통신 환경 지원 위한 '기가 아일랜드' 출범
2. KT MWC에서 UN SDGs 달성 노력 펼친 KT

고, 근무 만족도를 증진시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KT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며, GiGAtopia의 혜택을 누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 사회,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 공헌형 격차 해소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기에 KT는 국민 기업으로서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IT서포터즈', '드림스쿨', '글로벌 멘토링', '임직원 봉사활동 플랫폼', '장학사업', '노사공동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지역 격차에서 오는 불균형을 해결하고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GiGA Story', '동자희망나눔센터', '꿈 품센터'를 중심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끝으로 KT는 음악을 통한 문화 전파 활동으로 'KT 체임버홀'과 'KT 스퀘어'를 운영함으로써 문화 격차 해소 활동을 진행 중이며 공

연 티켓 수익금은 '청각장애 소리 찾기'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3월 시작으로 매월 전국 대학가 및 핫 플레이스를 찾아 문화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는 쌍방향 소통 콘서트, '청춘해'도 진행 중이다.



3. KT 평창 5G 성공으로 대한민국 ICT 재도약 선언
4. 쌍방향 소통 콘서트 KT의 '청춘해' 현장

인터넷전문은행의 빅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초반부터 돌풍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시도는 2001년으로 돌아간다. 2001년과 2008년 SK텔레콤과 롯데, 코오롱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시스템 등 벤처기업이 모여 '브이뱅크'의 설립을 추진했었지만, 금융실명제법과 자금 확보 문제, 금산분리 규제 등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성공요소로 부상하면서 2014년 7월 '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및 개혁을 과제로 발표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재점화됐다. K뱅크는 2017년 4월 3일 출범해 한국의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됐고, 이어 7월 27일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K뱅크는 출범 100일 만에 수신 6,500억 원, 여신 6,100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2017년 목표치인 수신 5,000억 원, 여신 4,000억 원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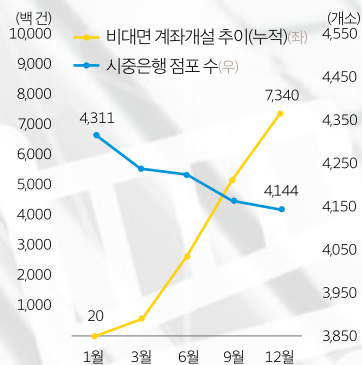
특히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무기로 출범 5일 만에 개설 계좌 100만 개를 돌파했다. 예·적금은 3,440억 원, 대출은 3,230억 원을 넘어섰다.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는 178만 건에 이른다. 계좌 개설 고객 중 67%인 67만 명이 체크카드 신청을 완료했다.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 전체가 지난해 1년 동안 기록한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인 15만 5,000건을 출범 첫날 18만 7,000계좌로 넘어섰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배경 첫 번째는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신뢰와 선호이다. 최근 시중은행의 금융 거래 중 비대면 거래도 90%를 차지하며, 2016년 한 해 동안 폐점한 점포 수는 167개에 달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시중은행의 거래 형태 중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비대면 금융 거래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고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이후 약 1년간 총 73.4만 개의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됐으며,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보험 및 펀드의 온라인 판매와 같이 다양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거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두 번째 성공 배경은 간편함이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이용해 간편 송금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간편 인증만으로 60초 안에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앱을 나갔다가 와도 '이어 하기'가 가능해 각종 정보를 재입력할 필요가 없다. 시중은행은 다양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아무 조건 없이 같은 금리를 제공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및 점포 수 추이(2016)



Source : 금융위원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BANK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의미하는 인터넷전문은행. 2017년 4월 3일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7월 27일에 카카오뱅크가 정식 출범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배경과 함께 성공 요인, 또 이에 따른 전통 금융산업의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세 번째 성공 배경은 금융서비스의 낮은 비용이다. 낮은 송금수수료뿐만 아니라 낮은 대출금리는 금융소비자에게 상당한 매력이다. 특히, 낮은 대출금리는 신용평가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이 만나며 신용평가가 체계가 고도화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와는 달리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과 같은 비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까지 적용하여 1,000여 개의 정보를 분석하는 등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들이 적용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예·적금 금리는 연 2%,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2.86%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매력적이다.

전통 금융산업,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금융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금융 플랫폼을 확보해 대응하고 있다. 금융플랫폼은 금융 거래를 위한 단순한 채널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고객의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자산관리, 일정관리 등은 물론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고객 접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융산업은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 영상, 메일, 문자, 톡 등의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온라인 본인인증 서비스와 실시간 통화내용 분석으로 인공지능(AI) 엔진을 학습시켜 상담 업무 지원 및 챗봇(Chatbot)을 이용한 무인상담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금융사들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사들은 고객들로부터 개인신상 정보, 거래실적 정보, 신용거래 불량 정보, 신용한도·신용소진·연체 등의 신용거래 내역 20여 개의 정보만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채무상환능력'은 평가했으나 '채무상환태도'는 평가하지 못했다. 더욱이, 기존의 신용평가 체계로는 고객에게 빠른 대출을 제공할 수 없었고,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대상에게 여신을 제공하지 못했다. 금융사들은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도적으로 범용화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의 이탈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로부터 소비자들을 끌어올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선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식별처리가 된 공공 빅데이터 및 비정형데이터 등의 데이터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자동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화되고 있음에 따라, 금융사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금융사별 서비스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현행	향후 계획
기업은행	• 계좌개설 • 신용대출 신청 등	• 상품 종류 확대 • 비대면 확인 방식 추가
신한은행	• 예적금 계좌개설 • 해외송금	• 거래자에 미성년자 추가(여권 활용)
우리은행	• 예적금 계좌개설 • 전자금융서비스	• 거래자에 법인추가 • 재신고 업무
하나은행	• 계좌개설 • 전자금융서비스	• 개설 가능 상품 확대 • 거래자에 개인사업자
SK증권	• 계좌개설	• 비대면 확인 방식 추가 (영상통화)
삼성증권	• CMA 계좌개설 • 간편이체서비스 등	• 개설 가능 상품 확대
유진투자	• 계좌개설 • 비밀번호 재설정 등	• 바이오인증 방식 추가
한국투자	• 위탁계좌 • 수익증권계좌 개설	• 비대면 확인 방식 추가 • 업무범위 확대

Source: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1. 비식별 데이터 제공

- 비식별 처리된 금융데이터를 분석용으로 제공
- 핀테크 P2P 대출 기업 등에서 시장분석, 평가모형개발, 전략설계 지원 가능

2.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활성화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연계분석이 가능
 - 통신정보의 신용평가 활용방안 모색
 - 휴대폰 정보를 활용, 중위등급 신용평가 개선
- 연계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 분석 가능
- 공공정책 설계 등의 연구분석 활성화

3.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비식별화 수준과 정보로서의 가치간 Trade-off의 실증 Test 진행
- 비식별화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례 발굴

Source: 금융위원회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

Tel. 02-2112-7438

E-mail. gwangskim@kr.kpmg.com

EU 개인정보 보호법 (GDPR) 도입에 따른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GDPR은 EU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곳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EU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삼성KPMG Cyber Security 리더
김민수 상무

Q. GDPR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내년 5월 25일부터 EU의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1995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이하 'Directive')」을 대체하는 규정입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각 회원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Binding)을 가지고 있으며, GDPR 위반 시에는 막대한 행정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심각한 위반(Serious Infringements)일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그 외 위반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GDPR은 전문(Recital) 총 173개 조, 본문 총 11장 및 99개 조로 방대한 내용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Chapter 2. 기본원칙', 'Chapter 3. 정보주체의 권리', 'Chapter 4.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Chapter 5.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Chapter 9. 특정 정보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입니다.

Q.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A.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임직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GDPR의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EU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들은 2018년 5월 25일까지 GDPR의 방대한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GDPR은 기존의 Directive와는 달리 EU의 모든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므로, EU의 여러 나라에 진출한 Global 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GDPR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사에 전파함으로써 일관된 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Q. 내년 5월, GDPR 도입을 앞두고 국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먼저, 'GDPR의 적용 대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GDPR은 EU에 사업장을 갖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활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한다면 GDPR이 적용됩니다. 또한 EU 내 사업장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EU 내의 정보주체인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GDPR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업장 위치뿐 아니라 비즈니스의 범위를 명확히 식별하여 GDPR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 'GDPR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GDPR은 기존 Directive와 비교하여 조문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상세한 통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담당자는 각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부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GDPR 전문/본문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이며, GDPR 후속 가이드 라인에 대한 사전학습이 요구됩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맛있는 경제>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시사 및 경제 용어 등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장발장 은행과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소개를 준비했다.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장발장 은행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빈곤·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장발장 은행. 지난 7월 19일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 중 장발장 은행의 운영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다시 주목받았다. 현행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하며, 장발장 은행은 생계 곤란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이들에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준다. 취지는 좋지만, 자원 마련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뉴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 세대를 지칭한다. 이들은 외모나 건강관리 등에 관심이 많아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여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높은 구매력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BC카드가 발표한 '2017년 소비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액티브 시니어의 피트니스센터와 피부, 미용 지출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들을 잡기 위한 각 업계의 마케팅 전략도 다양화되고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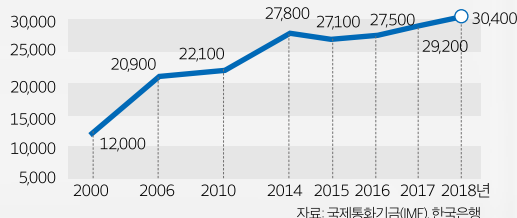
한국 1인당 GDP 세계 29위...내년 3만 달러 돌파 예상

지난 8월 6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7천633 달러) 순위가 작년 10월 기준 190여 개국 가운데 29위를 기록했다. 정부 경성장률 전망으로 추계했을 때, 내년에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1인당 GDP 순위 단위: 달러, 2016년 기준

룩셈부르크 1위 105,829	싱가포르 10위 53,053
스위스 2위 79,578	독일 18위 42,326
노르웨이 3위 71,497	캐나다 19위 42,319
마카오 4위 67,013	영국 21위 40,412
아일랜드 5위 65,871	프랑스 22위 38,537
카타르 6위 60,733	일본 25위 37,304
아이슬란드 7위 57,889	이탈리아 27위 30,294
미국 8위 57,294	한국 29위 27,633
덴마크 9위 53,053	스페인 30위 27,012

한국의 1인당 GDP 증가 추이 단위: 달러, 2017~2018년은 정부 경성장률 전망으로 추계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인재양성소

Talk + Play + Love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Samjong News



행복한 우리 본부 문화를 소개합니다! 'Just for People', JP본부

각 본부의 문화 및 활동을 살펴보는 <Culture Relay> 9월호에서는 'JP본부'를 만나봤다. JP의 약자가 본부 명인 Japanese Practice(일본사업본부)라는 의미 외에도 'Just for People'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JP본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JP본부만의 아주 특별한 문화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아나바다로 따뜻한 '정' 나눠요! ★



아나바다 활동을 전개 중인 JP본부. 그 시작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학률 본부장의 작은 선물에서 비롯됐다. JP본부 PPC Officer 오상영 이사는 “지난해 겨울, 본부장님께서 자녀의 책을 본부원들에게 선물해주셨는데, 몇몇 가정의 아이들이 뜻밖의 선물에 정말 기뻐했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본부장님의 자녀들도 뿌듯했다고 해요. 이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JPAC(JP 아나바다 Community)를 출범했고, 기부 물품을 모아 두 달에 1~2번씩 진행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김경진 대리는 “본부원 자녀들이 사용하고 기증한 물품이라 안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육아 및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본부원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첫 출산을 앞두고 고민하던 박미주 대리도 JPAC를 통해 육아 선배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 혹은 준비사항 등에 대한 조언도 듣고, 신생아 때 필요한 물품을 전달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팀별로 다채로운 Purpose 활동 펼쳐 ★



JP본부는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7 Values 중 하나인 '소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팀별 Purpose 활동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팀별 Purpose 활동으로 끈끈해진 친분은 업무에서도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한다. 임민경 Associate는 “올해 워크숍에서 각 Purpose팀끼리 게릴라 미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많이 친해졌어요. 본부 내 감사, 세무, 번역, 설립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본부원들과 더욱 끈끈해져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7 Values 사진 Contest, 감사 편지 나눔, Purpose 머그컵 만들기 등 Purpose 활동이 다채롭다. 장은아 부장은 “감사편지 나눔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평소에 말로 전하지 못한 마음을 감사편지를 통해 전할 수 있어 편지를 쓴 사람에게도, 받은 사람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에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Purpose 활동으로 본부원들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이학률 본부장이 전하는 한 마디!

“7 Values가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는 조별 Purpose 활동, JPAC 등의 활동을 통해 본부 내 소통이 더욱 활발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상대의 다른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국 서로 배려하고, 존중받는 JP의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GEP 8기 우수자 & 한공회 종합평가 성적우수자 인터뷰! 우수 인재들의 성장 노하우는?

GEP 8기 우수자 인터뷰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 낸 것!

이상홍 신입 때, 막연히 'GEP에 선정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이뤄졌네요. 법인에서 진행한 다양한 교육 등으로 업무의 기본 지식을 익힐 수 있었고, 선배님들에게 업무적인 노하우를 배워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이 점이 제가 GEP 우수자에 선정된 이유 아닐까 생각해요.

김영호 저 역시도 주변의 도움이 컸습니다. 본부장님의 격려와 ATO 분들의 지원 덕분에 한공회 1, 2차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업무 관련 교육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었어요.

김병민 저도 제일 먼저 팀원 분들께 감사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되면 누구나 막막함을 느끼고,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팀 선배, 동료 회계사님들이 항상 믿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자신 있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GEP 우수자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GEP 우수자 꿈꾸는 후배에게 한 마디!

김영호 GEP는 단시간의 성과만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입사 시점부터 3년간 업무에 꾸준히 열중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면 GEP 우수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상홍 사실, 업무를 하며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혼자 해결하기 위해 고생하지 말고, 깊이 고민해도 모르는 업무라면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김병민 저도 동의해요. GEP는 감사 직무 교육, 한공회 연수 성적, 업무 평가 등을 통합해서 평가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3년간 선배 회계사님으로부터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선배 회계사들을 롤모델 삼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Global Elite!

이상홍 GEP 과정을 수료했지만, 이제 겨우 신입 딱지를 뗀 3년 차 회계사예요. 아직은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시기지만, 중간 직급이 될 때에는 배우는 것도 많으면서 가르치는 것도 많은 회계사로 성장하고 싶어요.

김영호 GEP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단기적인 목표로는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장기적으로는 Korea Desk에 지원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아 진정한 Global Elite로 거듭나고 싶어요.

김병민 전문가는 특정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법인에서 이러한 Professional이 되고 싶어요.



이상홍 S.Analyst
(Deal Advisory2)

김영호 Senior
(ATO)

김병민 Senior
(ICE1)

노력과 열정으로 우수 인재로 성장 중인 삼성인이 있어 만나보았다. 바로 Junior 집중 육성 프로그램 Global Elite Program(GEP) 8기 우수자와 한국공인회계사 수습 1년 차 기본 실무 및 수습 2년 차 외부감사실무 종합평가시험에서 상위 5% 이내의 성적을 거둔 삼성인. 이들이 생각하는 인재 성장 노하우는 무엇인지 들어본다.

한공회 1, 2년 차 성적우수자 인터뷰

법인의 격려와 인정이 큰 ‘힘’!

박예지 사실, ‘정말 합격만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놀랐어요. 2년 차 시험은 패스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큰 편이라 작년보다는 조금 더 큰 중압감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패스와 동시에 좋은 성적도 거두게 되어 기분도 좋고 홀가분해요.

서동연 5% 이내 성적을 거둔 것이 크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타 경쟁법인과 달리 법인에서 표창 시상식을 열어 격려해주고, 인정 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포상으로 상품권을 받은 것이 제일 기분이 좋지만요. 하하.

조지훈 점수를 확인했을 때, 너무 놀라서 필드에서 ‘헉!’ 소리가 났어요.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종합평가시험에서 우수자로 선정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얻었어요. CEO님 및 많은 파트너분들께서 해주신 조언과 격려를 들을 수 있었던 순간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시간이었고, 개인적인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시간

박예지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없지만, 작지만 꾸준한 습관을 기르고 있어요. 통근시간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시간을 활용해 팟캐스트로 경제 및 시사, 영어회화 관련 콘텐츠를 청취하고 있어요.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서동연 저 역시도 특별한 노력보다, 소소하지만 꾸준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팀에 도움이 되는 팀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노력하고 있어요.

조지훈 저는 법인의 선배 회계사분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고객을 응대하는 자세 등 업무적인 부분은 물론 자기관리를 하는 방법까지도요.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님들을 롤 모델로 삼아 성장을 위한 시행착오를 줄여가고 있어요.

함께 일하고 싶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는 인재가 될 것

조지훈 삼성KPMG의 명성에 걸맞은 회계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서 삼성KPMG를 이끌어 나가는 회계사가 되고 싶어요. 또, 제가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운 것처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박예지 저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업무능력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느덧 3년 차인데, 이제는 팀에서 아래와 위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할게요.

서동연 항상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회계사로 성장하고 싶어요.



칵테일 원데이 클래스 체험기 Shake It! 칵테일 한잔 어때요?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에서 새로운 취미를 갖기가 쉽지 않다. 김인화 Associate(B&F2본부)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기로 했다. 바로 칵테일 클래스! 회사를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일일 바텐더로 변신한 스토리에 귀 기울여 보자.



좌측부터 B&F2본부 김인화 Associate, 장혜진 S.Senior, 오서연 Senior, 유별 Senior

Work & Life Balance를 위한 첫 시작!

삼정KPMG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F2본부 김인화 Associate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모 금융그룹의 IFRS9 용역'에 뒤늦게 합류하게 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여성 회계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혜진 S.Senior, 유별 Senior, 오서연 Senior님 이에요. 2번의 Busy Season을 경험하며 Work & Life Balance는 점점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무리한 일상에 지칠 때, 장혜진 S.Senior, 유별 Senior, 오서연 Senior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세 분 모두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가고 계시더라고요. 피아노, 필라테스, 서울 근교 여행 등 주말마다 부지런히 본인의 삶을 즐기시는 모습은 집순이를 자처하며 주말을 무료하게 보내는 제 모습과 사뭇 달랐고, 큰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는 새롭게 여가 활동을 즐겨보려던 찰나, 운명처럼 Benefits Program 공지 메일이 도착했고, 그 메일을 통해 처음으로 함께 'Talk+Play+Love'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색 활동을 할까? 고민하다 회식자리에서 쉽게 즐기기 어려운 주종이고, 간단한 레시피로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 '칵테일 클래스'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네 명 모두 술을 좋아하는 것은 안 비밀이고요! 하하.

'모히토에서 몰디브 한잔?' 짜릿한 바텐더 경험!

우리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한 골목에 있는 'OPAS'라는 Bar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OPAS'에서 진행된 칵테일 수업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모히토'는 상대의 입맛에 맞게, 또 '에스프레소 마티니'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바텐더 강사님이 전체적인 레시피를 설명해주었고, 현란한 솜씨로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잔할까?'라는 영화 대사로 유명해진 모히토는 쿠바와 같이 더운 나라에서 즐겨 먹는 칵테일인데요, 기본이 되는 럼 베이스에 따라 또 첨가되는 시럽의 종류와 민트 잎의 양에 따라 맛이 다양해지는 매력적인 칵테일입니다. 특히, 모히토는 바텐더가 되어 상대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봤는데, 직접 Bar 안에 들어가서 '손님, 칵테일 맛은 어떠신가요?'라며 멘트를 던지며 완성된 모히토를 건넬 때의 그 짜릿함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넷 모두 직접 바텐더가 된 기분이라며 설레하며 맛을 보고, 칵테일을 즐기며 기뻐했습니다.

이어서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에스프레소 마티니는 아이스크림과 갈루아를 넣어 도수가 센 마티니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변형한 칵테일로 넣는 재료의 양을 다르게 하여 맛을 보며

“

클래스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만 뵈던 분들과 주말에 사석에서 만나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기우에 불과했어요. 하하, 각자 만든 칵테일의 인증사진도 찍어주고, 서로의 칵테일이 더 맛있다고 칭찬도 해주고 개인적으로 더욱 가까워진 시간이었어요.

”



완성해 갔습니다. 이를 통해 제 입맛에 맞는 칵테일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클래스 마지막에는 퀴즈를 통해 상품으로 강아지 인형을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두들 잠깐이나마 바텐더가 되어 신나게 흔들며 칵테일을 완성하는 재미뿐만 아니라, 기본 3잔 이상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최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로를 알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

사실 클래스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만 뵈던 분들과 주말에 사석에서 만나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클래스를 하고 나니 기



우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하, 각자 만든 칵테일의 인증사진도 찍어주고, 서로의 칵테일이 더 맛있다고 칭찬도 해주고 개인적으로 더욱 가까워진 시간이었어요.

또한 칵테일 클래스를 계기로 흥미로운 클래스가 있다면 함께 하기로 했고, 그 뒤로 호두 타르트 만들기, 플라워 클래스 등을 신청하여 수강하기로 했습니

다. 많은 삼정인 분들도 이색적인 클래스를 통해 취미도 만들고 함께 일하는 동료, 선배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길 추천합니다.

끝으로 이번 클래스를 함께 해주신 선배 회계사님들에게 한마디하며 마무리 짓고 싶네요.

“2017년에 초도감사가 많아 분기부터 야근도 많이 하고 휴일에도 일하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회계사님들과 Refresh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회계사님들과 함께 생기에너지 가득 충전했으니 우리 반기에도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사... 사랑합니다... ♡!”

OPAS(오파스)

태국 음식 다이닝 바. 연남동 태국 음식 전문점인 톡톡 누들 타이와, 소이연남의 임동혁 사장이 오픈한 곳으로 태국 요리와 함께 위스키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애플리케이션 ‘프립’을 통해 칵테일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68
- 문의: 070-8867-5858



라인강의 기적, 독일의 문화와 에티켓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독일. 경제, 과학 분야뿐 아니라 문화에서도 서유럽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바흐, 베토벤, 괴테, 칸트, 니체 등 저명한 사상가와 철학자, 음악가들의 고향인 독일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보여주며 성장해온 독일의 문화와 에티켓을 원종인 Manager와 함께 살펴본다.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과 독일의 운전 에티켓!

한국인들이 독일어 중 가장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가 아우토반(Autobahn)이 아닐까 싶습니다. TV 광고에도 등장한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로서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곳입니다. 아우토반은 통행료가 없고, 높은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직선코스입니다. 아우토반은 기본적으로 120Km, 80Km 등의 속도제한 구간이 있지만, 속도 무제한 표지가 있는 일부 구간에서는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인근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사고율이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아우토반의 좋은 도로상태 외에도 엄격하게 교통법규와 에티켓을 지키는 독일인들의 준법정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비롯해 운전 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요 규정과 에티켓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봅시다. 첫째,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 이외 시에는 비워두는 차선입니다. 처음 독일에서 운전할 때, 잘 모르고 1차선을 달리다가 뒤에 있는 차들이 상향 전조등을 깜빡이며 비키라는 신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둘째, 우측차선으로 절대로 추월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좌측차선이 추월차선이며, 우측차선으로 추월할 경우 벌금도 물게 됩니다. 특히, 독일은 차의 앞 유리 선팅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에티켓을 지키지 못하면 뒤에 오는 차량의 운전사의 화난 표정과 손짓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경찰차나 앰블런스 등이 지나갈 때는 모든 차들이 통행을 비켜줍니다. 도로에 큰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수습되기 전까지 도로 전체를 통제하기에 교통체증은 거의 없지만, 사고로 인해 도로 위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선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도로의 가운데는 비워두고, 사고가 수습되기 전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차를 운전하거나 줄을 서있을 때 독일 사람들은 양보하고 서로 잘 기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독일 Etiquette Plus+

- 1 인사는 짧고 강하게!**
독일인들도 만나면 악수를 하는데, 이때 악수는 강하고 짧게 한다. 또한, 상점이나 레스토랑을 출입할 때 인사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독일에서는 항상 인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2 칭찬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독일인들은 상대방이 칭찬하면 매우 당황하는 편이다. 이에 칭찬을 잘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독일 사람들은 꾸미거나 과장하는 것을 싫어하기에, 칭찬도 그런 의미에서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은 미리! 느리지만 철저한 시간관리

미팅이나 방문 등 독일 사람들과 약속할 때는 적어도 2주 이상 전에는 예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계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구체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획에 따라 실행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업무 시작에서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만, 계획 이후 단계에는 속도가 붙고, 철저한 계획으로 인해 안정적인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가장 큰 독일의 문화적 차이는 사회 문화적인 시간 개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의 사회이지만, 독일은 빠른 속도보다는 꼼꼼한 품질과 안전에 주안점을 둡니다. 독일은 아직도 편지, 서명, 현금 등 오프라인 또는 아날로그적인 도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처음 독일에 온 한국인들은 이러한 느낌에 적응하지 못하여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러나 느린 속도로 인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우체국에 갔을 때, 사과를 손에 쥐고 먹고 있는 직원에게 우편물을 보낸다고 하니, 직원은 사과를 먹고 있으니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술집에서 주문이나 계산할 때도 부르지 않고 기다리다 웨이터와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면 주문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일부 성미 급한 외국인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참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나라? NO! 여유를 즐기는 나라

독일은 저녁 8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식당을 제외한 가게들이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토요일에 미리 사뒀야 하고, 일요일에는 조용히 가족 혹은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독일의 일상입니다. 이러한 점이 독일을 재미없는 나라로 인식되게 하지만, 주변 이웃집을 방문해 식사를



1. KPMG 빌딩 앞을 관통하는 아우토반 2. 가족과 함께한 뮌헨 여행 3. 팀 이벤트 이후 저녁 모임

하거나 한가로이 자전거를 타는 등 점차 개인적인 여유를 즐기며 독일이란 나라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말에 종종 저녁식사를 초대받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를 초대받았을 때는 독일인만의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초대를 받으면 꽃이나 케이크 등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예의이며, 식사 중에는 씹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음식 또한 남기는 경우를 좀처럼 보기 힘들었습니다.

한편, 독일을 방문하면 당황하는 점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물한 컵조차도 공짜는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서비스라고 일컬어지는 문화가 독일에는 볼 수 없어, 처음에는 냉정한 것 같더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대우가 잘 되어있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 서비스 산업의 물가도 높고 부가가치도 높은 것 같습니다.



CONTACT US

독일 KOREA DESK 원종인 MANAGER

Tel. +49 160 666 2720 E-mail. jwon2@kpmg.com

3 레이디 퍼스트는 기본 중 기본!

독일은 여성을 매우 존중하는 나라로,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예외 없이 무조건 여성이 먼저 존중받는 사회이다. 여성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맞이하고, 여성이 서 있을 경우에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출처: 『글로벌 에티켓 2』 글 박동석,
출판사 꿈꾸는 꼬리연

독일 Korea Desk

Korea Desk가 위치한 Frankfurt는 인구 약 73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베를린, 뮌헨 등에 이어 독일 내에서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독일 Korea Desk는 독일 전역의 27개 KPMG 오피스에 있는 Korea Practice를 지원하여 Audit, Tax와 Advisory 등 모든 Function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한국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 유지하여 KPMG로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식별하고 KPMG 내의 가장 우수한 전문가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좋은 Feedback이 나올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대체 투자지로 부각되어 글로벌 은행 및 기업들의 유럽본부가 독일 Frankfurt로의 이전 및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독일과 Frankfurt에서 KPMG가 믿을 수 있는 동반자이며 조언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Bring the KPMG Story to life...

2017 New Partner Story



사람(人)을 먼저 생각하며

B&F2본부 조형욱 상무



항상 꿈꿔왔던 파트너가 되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삼성KPMG가 업계 최고의 No1 회계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교차합니다.

저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람(人)을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사람(人)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의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객의 고통, 불만,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객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장의 수익만을 쫓아서 행동한다면 작게는 프로젝트 수임도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객에게 신뢰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기 자신, 동료, 후배, 선배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의 능력과 가치를 믿지 못한다면 고객 앞에 당당히 얘기하지 못할 것이고 고객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약 15년간의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위의 2가지를 잊어버려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도 있고, 이와 반대로 어려운 외부 환경에서도 팀원들과 똘똘 뭉쳐서 좋은 결과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인의 파트너로서 '사람(人)을 먼저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법인의 성장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人)을 먼저 생각하며' 각자 위치에서 동료와 고객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조그만 변화들을 시작한다면 KPMG가 No1. 회계법인이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고 리스크 컨설팅 그룹을 꿈꾸다

RCS본부 정우철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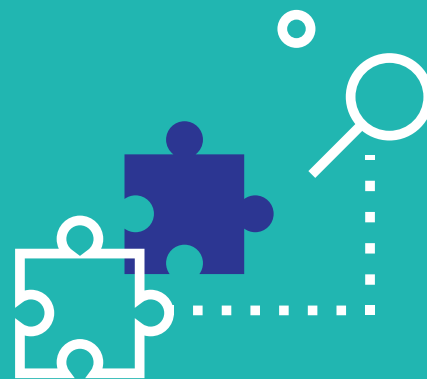
최초 입사 시 우리 FRM팀은 아주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규모도 작았지만, 신생 조직으로 경험도, 지식도 그리고 무엇보다 컨설팅을 위한 자산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제안서를 써야 할 상황이면 괜찮아 보이는 자료를 찾고, 출력하고 그걸 밤새워 읽어 제안서화 시켜야 했습니다. 알듯 모를 듯한 고객의 제안 요청서에 주변 경쟁사들의 화려한 제안서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우리의 제안 결과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몇 년 동안 계속하던 중 한두 번 찾아오는 기회를 어렵게 수임으로 연결하여, 고객들에게 불멘소리를 들어가며 프로젝트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2004년 A은행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컨설팅이나 2005년 B은행 바젤2 도입 프로젝트 및 2007년 C은행 바젤 승인지원 프로젝트 등의 이정표와 같은 일들을 거치면서 우리 FRM팀은 차차 리스크 컨설팅 시장에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제 FRM팀은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금융 기업들의 다양한 리스크 관리 컨설팅 업무를 그리고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 등 영역의 한계도 넘어선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Tier1 리스크 관리 컨설팅 그룹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중 하나인 D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체 구축 및 운영체계 수립을 완료했고 최종 금융감독원의 전문은행 본인가 승인을 획득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시중은행 마지막 인허가 이후 25년 만의 일로서 향후 D은행을 이용할 후세대들에 기억될 만한 역사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위기는 여전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FRM팀이 최고의 리스크 컨설팅 그룹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구성원들의 KPMG Story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KPMG Story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도 신임 파트너들이 생각하는 KPMG Story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What do you do at KPMG?'란 질문에 신임 파트너들이 어떤 스토리로 답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자.



소통과 협업이 신뢰를 부여합니다

Deal Advisory2본부 최상욱 상무



제가 2017년 초에 수행한 A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업무는 일반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개인투자자까지 채무재조정에 참여하는 고난도 업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방안은 도출되기 어려운 구조였고, 결국 일부 채권자는 언론을 통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불만과 실사법인에 대한 비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재조정 방안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Engagement Manager로서의 부담감이 컸습니다. 삼성KPMG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실사 업무 과정에서 협업한 감사본부(IM4)뿐만 아니라, DPP본부까지 여러 전문가 분들이 꼼꼼하게 실사 내용을 점검함과 동시에 논리적인 부분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채권자들의 요구에 맞추려, 우리의 논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Confidence를 저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저는 협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조정방안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채권자들과 언성이 높아지는 논쟁이 벌어질 때도 있었으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사는 채권자들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채무재조정 방안이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KPMG에서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 앞의 일이 '나만의 일'이라 생각하고 혼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KPMG 내에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전문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생기고 난관에 부딪힐 때, 삼성KPMG 내 여러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한다면, 어느덧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부여하는 전문가 조직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스스로를 고용하는 Professional

FS TAX본부 유승희 상무



KPMG Purpose는 제게 '낙타가 아닌 사자 같은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주인이 억지로 얹은 짐을 지고 대상 행렬을 따르는 무기력한 낙타에서 벗어나 인생을 주도하고 스스로가 고용주가 되는 사자와 같은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낙타의 삶을 버리자고 생각한 계기는 처음으로 세무조사 지원 업무에서 인차지 역할을 수행했을 때입니다. 당시 선임 매니저의 퇴사로, 갑작스럽게 홀로 상주 파견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차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회사에 상주하며 계속되는 회사의 각종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 현업 부서와의 사전 인터뷰, 매주 진행되던 보고 업무 등을 비롯해 용역의 진행 흐름에 대한 전략이나 세무조사관 대응방향 등 전체 그림을 바라보고 전략을 짜고 수행하는 역할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난관을 극복하게 된 가장 큰 동력은 고객의 어려움을 제 일처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무조사 지원팀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KPMG가 고객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과 기대를 고객에게 심어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한 것 같습니다. 용역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후 저는 그 이전에 팀원으로서만 용역을 수행할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가 아니지만, 이전과 달리 '내 고객'이고 '나의 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사자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스스로를 고용했다는 생각으로, 고객을 위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고객에게는 신뢰를 줄 것이고, 그러한 신뢰가 사자의 삶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ONTHLY NEWS

총 15명 우수자, 내년 초에 영국으로 해외연수 떠나 GEP 8기 우수자 시상식 개최



1. GFC 10층 바다 휴게 라운지에서 진행된 GEP 8기 우수자 시상식 2. 영광의 GEP 8기 우수자의 모습 3. 삼정KPMG 김교태 CEO와 함께한 GEP 8기 우수자 단체 사진

지난 8월 3일, 삼정KPMG 본사 바다 라운지에서 'GEP 8기 우수자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GEP* 8기는 2014년 입사한 신입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 사내 직무과정 및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로열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마인드와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총 15명을 성적우수자로 최종 선발했다.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15명의 삼정인은 김교태 CEO의 시상으로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영국 해외연수(2018년 5월 진행 예정)의 기회까지 얻었다.

이날 시상식은 김교태 CEO를 비롯해 각 Function의 대표 및 우수자들의 소속 본부장 등도 참석하여 우수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교태 CEO는 “GEP에 선정된 여러분들은 미래의 핵심인재로 인정받은 것이기에 더욱 자부심을 갖고 성장하길 바란다.”며, “우리의 비전인 ‘The Clear Choice’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은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이다. 인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또 인재들이 법인과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Global Elite Program(GEP)은 삼정인으로서 갖춰야 할 Technical Knowledge, Professionalism, Global Mind를 배양하기 위한 Junior 3년 집중 육성 프로그램으로, 삼정KPMG는 GEP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삼정인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GEP 8기 우수자 (Audit, Tax, DA Function별 가나다 순)



강혁
(IM1)



김경률
(B&F1)



김병민
(ICE1)



김의진
(ICE2)



민유성
(CM)



신주환
(IM4)



이태형
(ICE1)



최규범
(IM2)



홍재권
(IGH)



김영호
(ATO)



이상원
(Global Tax)



최정현
(FS Tax)



배우람
(Deal Advisory1)



이상호
(Deal Advisory2)



최유진
(Deal Advisory4)

5% 이내의 우수한 성적 거둔 삼정인 27명 표창 수여 받아

2017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식 개최



1. 2017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식에서 김교태 CEO가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 2017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들의 모습

삼정KPMG는 지난 8월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한 ‘2017년 수습 1년 차 기본실무 및 수습 2년 차 외부감사실무 종합평가시험’에서 5%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1~2년 차 종합평가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총 27명의 회계사가 법인의 위상을 높인 공으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삼정KPMG는 ‘2017 한공회 수습 1년 차 기본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서 법인 소속 대상자 214명이 응시, Big4 중 유일하게 전원 합격했다. 또한, 상위 5% 이내 성적우수자는 16명(법인 응시인원 중 7.5%)으로, 3년 연속 Big4 중 가장 많은 성적우수자를 배출했다. 특히, 조지훈(JP) 회계사는 91점으로 전체 수석을 했고, 총 5명이 상위 10등에 포함되어 법인의 위상을 높였다.

‘수습 2년 차 외부감사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서는 216명이 응시, 214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11명(5.1%)이 상위 5%에 랭크됐다. 상위 5% 이내 우수자 11명 중 5명이 전체 상위 10등을 기록했고, 오종면(B&F2) 회계사와 서동연(Domestic Tax2) 회계사는 1년 차 종합시험에 이어 이번 연수에도 상위 5%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상위 5% 이내 성적우수자 명단



1년 차 기본실무 조지훈(JP), 문성균(B&F1), 송영진(ICE1), 김준형(ICE1), 김원기(B&F1), 류재광(Global Tax), 권범철(Deal Advisory2), 박은희(CM), 윤승노(B&F2), 노현아(IM1), 이주원(Deal Advisory4), 조종현(JP), 김윤지(B&F3), 안수진(B&F1), 황다운(IGH), 신유지(Domestic Tax1)



2년 차 외부감사실무 오종면(B&F2), 박예지(Deal Advisory2), 서동연(Domestic Tax2), 정익형(IM3), 박병래(Domestic Tax2), 김경우(IM4), 황인찬(IM1), 김광겸(IM2), 김대훈(Domestic Tax2), 이충기(IM2), 유슬비(FS Tax)

삼성KPMG, '제3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



삼성KPMG가 9월 1일 강남파이낸스센터 삼성KPMG 본사에서 '제3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교수단에는 김일섭 회장(한국 FPSB)과 손성규 교수(연세대 경영대학)가 새롭게 위촉됐고, 한종수 교수(이화여대 경영대학)와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과대학), 김성용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현미 교수(계명대 경영대학)는 지난해에 이어 연임됐다. 새로 위촉된 김일섭 회장은 제6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과 포스코 감사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손성규 교수는 제35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주항공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문교수단은 내년 8월까지 임기 1년간 삼성

KPMG ACI 활동 전반에 대해 경영, 회계, 법률 등의 자문을 맡게 된다. 분기마다 발간되는 'ACI 저널'의 기고 작성 및 간행물 감수, 그 외 정기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KPMG ACI는 오는 9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내 기업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3회 삼성KPMG ACI 세미나'를 개최한다.

'IFRS15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삼성KPMG가 8월 24일 테크놀로지 및 게임·엔터테인먼트, 바이오, e-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IFRS15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별 IFRS15 도입 예상 이슈를 짚어보며, 기업과 감사인, 자문기관의 실무적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편, 삼성KPMG는 'IFRS CoE' 팀을 통해 IFRS 실무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 중이며, 오는 9월 7일에는 화학 분야 기업,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을 대상으로, 13일에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IFRS15 세미나가 개최된다.

* Contact: ICE1 양승렬 부대표 seungyeoulyang@kr.kpmg.com



임직원 위한 야구 경기 관람 이벤트 진행

삼성KPMG가 임직원을 위한 '야구 경기 관람 이벤트'를 진행했다. 8월 4일 LG vs 두산, 8월 25일 넥센 vs 두산, 두 차례에 걸쳐 야구 경기 관람표 총 160매를(1인 2매) 깜짝 선물하는 이벤트를 열어, 임직원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다. 야구 경기 이벤트에 선정된 한 직원은 "유난히 더운 여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법인에서 깜짝 이벤트를 열어 기분 좋게 경기를 관람하고 왔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복한 일터를 이뤄가는 삼성KPMG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KPMG, 美 XBRL 작성 1호 사업자로 선정돼

삼성KPMG가 미국 상장기업의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보고서 작성을 위한 1호 사업자로 선정됐다. 미국 상장기업 중 하나인 KB금융그룹이 'SEC XBRL 보고서 작성' 사업자로 삼성KPMG-한국XBRL본부 컨소시엄을 선택한 것이다. 삼성KPMG의 한기원 상무는 "XBRL을 이용한 기업공시제도는 국제적인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추세에 한국의 기업공시제도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현행 XBRL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에 상장한 외국기업에 대해 2017년도 연차재무제표부터 XBRL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했다.

삼성KPMG, 업무 효율성 증대 위해 노트북 교체

삼성KPMG가 9월 1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임직원들의 노트북 제조사 및 모델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진행한 브랜드/모델별 노트북에 따른 임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모델로 교체되며, 배포 시기는 9월 18일부터다.

'제8회 Kids Camp' 개최

삼성KPMG는 8월 9일, '2017년 Kids Camp'를 진행했다. 삼성KPMG Kids Camp는 임직원 자녀를 사내로 초청하는 부모 직장 체험 활동이다. 임직원의 자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즐거워 하는 레크레이션 활동부터 부모님께 쓰는 그림 편지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를 위한 경제교실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직접 가게 사장이 되어 물건을 만들고, 홍보,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돈의 흐름과 저축, 기부 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삼성KPMG는 임직원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랑나눔

'사랑의 밥상' 봉사로, 환우들을 위한 식사 마련해

지난 8월 5일, 삼성KPMG는 총정로 위치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한 '사랑의 밥상' 봉사활동을 펼쳤다. 만성신부전증은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신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체내에 여러 종류의 노폐물이 축적되어 전신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는 하루 200명 가량의 만성신부전증 환우들이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투석 중에는 이동이 어렵다.

봉사를 위해 모인 16명의 삼성인은 식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또 직접 각 병실에 점심 식사를 배식하는 등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봉사에 참가한 한 직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힘겹게 투병하는 환우들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 This is what we want to be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